

# 최근 전세계 산업정책의 특징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서대훈 (kdb14@kdb.co.kr)

- ◆ IMF는 '23.1월부터 국가산업정책을 개입의 동기, 대상 및 정책도구별로 구분하여 조사
- ◆ 산업정책은 선진국들이 신흥시장·개발도상국에 비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재정·행정적인 여건 등에 따라 정책도구 사용 방식은 상이하게 나타남
  - 주로 이중용도, 첨단기술 등 부문과 같은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측면에서 사용
- ◆ 분석결과, 각 국가의 정치적, 구조적 및 순환적 거시경제 요인에 의해서 산업정책의 사용이 영향 받는 것으로 파악

※ 본고는 '24.1월 IMF의 "The Return of Industrial Policy in Data"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 □ IMF는 국가들의 산업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23.1월부터 전세계 산업정책 현황을 조사

\*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내의 기업, 산업 또는 경제활동을 개발하거나 지원하는 정부의 개입을 뜻하며, 신산업정책은 과거의 철강·자동차 부문의 경쟁력 강화라는 전통적인 목표에서 지원부문의 범위와 목표를 확장한 것이라고 정의함

- 최근 언론을 통해 산업정책에 대한 언급이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로 산업정책의 빈도나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이에대한 연구목적으로 조사 시작
  -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 및 정책의 증가는 금융위기 이후 더딘 성장 및 공급망 교란 문제 등의 해결과 신기술 분야의 리더십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에서 기인
- 조사는 GDP의 94%를 차지하는 75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정책을 정책개입의 동기, 개입의 대상, 정책도구별로 구분

\* 미국, 한국 등 국가 단위가 기본이나, European Union, Gulf Cooperation Council 등 경제 공동체 포함

- (동기) ①국가 안보, ②지정학적 고려, ③공급망 복원, ④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⑤기후대응
- (대상) ①저탄소기술, ②이중용도(Dual-use)\*, ③중요 광물, ④첨단기술, ⑤철강 및 알루미늄, ⑥반도체, ⑦의료, ⑧기타(IT 또는 디지털서비스)

\* 민간, 군사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 서비스 및 기술

- (정책도구) ①수출장벽(수출금지, 수출 라이선스, 관세 및 쿼터 등), ②수입장벽(수입금지, 반덤핑, 상계관세 등), ③국내 보조금(생산보조금, 가격안정화 조치, 대출보증 등), ④수출 인센티브(수출보조금, 무역금융 등), ⑤FDI\*(FDI 심사 및 진입·소유 요건 등), ⑥공공조달 조치(공공조달 법이나 관행 변경), ⑦현지화 요건 조치(현지 생산시 인센티브나 의무화 요건 부여 등)

\* Foreign Direct Investment

□ 산업정책은 해당국가의 소득수준과 재정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주로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 목적을 가지고 이중용도·첨단기술 섹터에 집중

- 선진국이 전세계 산업정책의 70.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EU·미국이 전체의 47.7% 차지
  - 정책도구 측면에서는 선진국·신흥시장·개발도상국 모두 국내 보조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부터는 국가의 재정여력과 행정능력 등에 따라 상이\*
  - \* 캐나다, 독일, 일본, 한국의 경우 수출 인센티브를 선호하고, 중국, 인도, 러시아의 경우 수출장벽 사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저소득 개발도상국은 수입장벽에 주로 의존

소득수준 그룹별 산업정책 (23년 기준)

구분	국내보조금	수출장벽	수출인센티브	FDI	수입장벽	현지화요건	공공조달	합계
선진국	788	69	148	9	111	124	33	1,282
신흥시장·개발도상국	242	35	25	16	146	53	7	524
합계	1,030	104	173	25	257	177	40	1,806

자료 : IMF

- 산업정책의 사용동기는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가 가장 크지만, 그 외 기후 대응, 공급망 복원 등도 증가하는 상황
  - 정책 동기별 비중 :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37.0%), 기후대응(28.1%), 공급망 복원(15.2%), 기타(국가 안보 및 지정학적 고려)(19.7%)
- 지원 대상으로는 이중용도, 첨단기술·반도체·의료, 저탄소 기술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전통적 산업정책의 대상이었던 철강 및 알루미늄도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
  - 대상별 비중 : 이중용도(25.7%), 첨단기술·반도체·의료(20.6%), 저탄소 기술(15.3%), 철강 및 알루미늄(10.1%), 중요 광물(3.0%), 기타(25.3%)

□ 산업정책의 사용은 정치적, 구조적 및 순환적 거시경제 요인에 의해서 영향

- 회귀분석 결과, 산업정책은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을 지원하고 타국의 산업정책이 자국에 영향을 미칠 경우 맞대응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경향이 있음
  - \* 실제 중국, EU, 미국의 경우 주요국으로부터 보조금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경우 1년내에 똑같이 보조금 정책을 시행할 확률이 평균 73.8%였음
- 또한, 정치적 요인(당해 혹은 다음해에 선거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등), 구조적 요인(국가의 수출집중도 등) 및 순환적 거시경제 요인(실질실효환율의 변동 등)이 산업정책의 사용 요인으로 작용